

## 한국어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통사적 특성과 습득 연구\*

### A Study of Syntactic Properties and Acquisition of Head-Internal Relative Clauses in Korean

조 수 근\*\*  
(Sookeun Cho)

**요약** 이 논문은 한국어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통사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이 구문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동들에 의해 어떻게 습득되는가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한국어 내포 머리어 관계절 구문의 통사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내포 머리어 관계절을 생성문법에 비추어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한국어의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일반적인 외포 머리어 관계절에 비해 통사적으로 사용이 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여러 개의 절을 넘어 관계화가 일어날 수 있는 외포 머리어 관계절과 달리 하나 이상의 절을 넘어 관계화가 일어날 수 없다. 또한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등이 관계화될 수 있는 외포 머리어 관계절과 달리 단지 주어와 직접목적어만이 관계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습득 연구를 위해 관찰 방법을 이용한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자료 뿐만 아니라 이해도 측정 실험과 산출 실험을 이용한 자료도 같이 분석하였다. 이들 자료의 분석을 통해,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외포 머리어 관계절에 비하여 아동들이 이해하고 말하기가 더 쉽고 따라서 외포 머리어 관계절에 비해 아동들에 의해 더 일찍 습득됨을 알 수 있었다. 보통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성인들에게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동들에게 특히 언어 발달 과정의 이른 시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외포 머리어 관계절의 습득에 앞서 많이 사용되어진다는 습득 연구에서의 결과는 언어발달의 이른 시기에 있는 아동들이 내포 머리어 관계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말해준다. 다시 말해, 아동들은 언어 발달의 이른 시기에는 이해하고 말하기 어려운 외포 머리어 관계절 대신 쉬운 내포 머리어 관계절을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실제, 외포 머리어 관계절은 언어 발달 과정에서 늦게 습득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제어** 내포 머리어 관계절,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문법,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습득, 관계절의 문법, 관계절의 습득

**Abstract** In this article, we investigate some structural properties of head-internal relative clauses in Korean and their development in Korean-speaking children. In this study, we found head-internal relative clauses in Korean has a more limited domain than head-external relative clauses with respect to positions that can be relativized and clause boundaries that the head can move across: in head-internal relative clauses, only a subject or an object can be relativized and doubly embedded clause constitutes a barrier to the movement of the head. We also found that head-internal relative clauses are easier to understand and produce than head-external relative clauses. In addition, we found that head-internal relative clauses emerge earlier than head-external relative clauses in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in Korean. The preference of young children(aged 4 and 5) for head-internal relative clauses over head-external relative clauses suggests that children like to use head-internal relative clauses at an early developmental stage when they have difficulty in using head-external relative clauses.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광운대학교  
연구세부분야: 언어습득

주소: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1, 광운대학교 연구관 601-2호  
(우편번호: 139-701)  
전화번호: 940-5587, 011-9668-1200  
e-mail: sookeunc@hanmail.net

## 1. 서론

관계절이란 명사(보통 '머리어'라 불린다)를 수식하는 내포문을 말하는데, 관계절 안에는 머리어와 일치하는 하나의 공백(보통 '관계화된 명사'라 불린다)이 존재한다. (1)과 (2)는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관계절의 예를 보여 준다.

### (1) 영어

the book [which Mary bought \_\_\_\_ yesterday]

### (2) 한국어

[영희가 어제 \_\_\_\_ 산] 책

(1)과 (2)에서 볼 수 있듯, 한국어의 관계절은 영어와 달리 which, who, that과 같은 관계대명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머리어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영어의 관계절과 달리 머리어의 왼쪽에 위치하여 머리어를 수식하여 준다.

일반적인 관계절은 위에서 볼 수 있듯 머리어와 일치하는 공백을 갖는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관계절은 머리어가 관계절 밖에 위치하므로 외포 머리어 관계절(head-external relative clause)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3)에서처럼, 공백을 포함하지 않는 관계절이 존재하는데 이때는 '것'이라는 불완전 명사가 관계절의 뒤에 나온다 (Jhang, 1994:11).

### (3) 내포 머리어 관계절:

[도둑이 보석을 훔친] 것이 가짜이다.

(3)과 같은 관계절의 형태는 머리어로 해석이 되는 명사(여기서는 '보석')가 관계절의 내부에 존재하므로 내포 머리어 관계절(head-internal relative clause)이라 불린다.<sup>2)</sup>

이 논문은 한국어의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통사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어떻게 한국인 아동들이 이 관계절을 습득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통사적인 특성

### 2.1 머리어 이동에 있어서의 제약

생성 문법에서 영어 관계절의 형성은 의문사 의문문과 같은 wh-이동 규칙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4)와 같

은 관계절은 (5)처럼 두 개의 표현 구조를 갖는다.<sup>3)</sup>

(4) the book [which Mary bought \_\_\_\_ yesterday]

### (5) a. 기저구조

the book [Mary bought which yesterday]

### b. 표면구조

the book [CP [SPEC which<sub>i</sub>] [COMP \_\_\_\_] [IP Mary bought t<sub>i</sub> yesterday]]

관계대명사 which는 wh-이동 규칙에 의해 자신이 원래 위치했던 절의 제일 앞으로 이동한다. 그리면서 원래의 위치에는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 이 때 이동한 관계대명사 which는 기저구조에서 자신이 원래 속했던 절과 똑같은 절에 속해 있다. 그러나 (6)에서 볼 수 있듯, 관계대명사는 원래 자신이 속한 절의 범위를 넘어 더 상위절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장거리 이동 관계화라고 한다.

### (6) 장거리 이동 관계화:

a. I met the man [CP [SPEC who<sub>i</sub>] [COMP \_\_\_\_] Sue thought [CP she loved t<sub>i</sub>]].

b. I met the man [CP [SPEC who<sub>i</sub>] [COMP \_\_\_\_]

Joe said [CP Sue thought [CP she loved t<sub>i</sub>]].

(6a)의 예에서 관계대명사 who는 원래 자신이 속한 절보다 하나 더 상위절로 이동하였고, (6b)에서는 두 개 더 상위절로 이동하였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관계절은 이동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Kuno, 1973; Yang, 1973; Lee, S. W., 1983), Han(1990)은 한국어의 관계절 형성을 보이지 않는 관계대명사, 즉 빈 관계 운용소(OP)가 이동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7a)의 표면 구조는 (7b)와 같다.

### (7) a. 기저구조:

[CP 민자가 OP 사랑하는] 사람

### b. 표면구조:

[CP [민자가 t<sub>i</sub> 사랑하는] [COMP \_\_\_\_] [SPEC OP<sub>i</sub>]] 사람

위의 한국어의 예에서 보이지 않는 관계대명사(OP)는 원래 자신의 위치에서 내포문의 제일 앞자리로 이동하는데, 이것은 (5)의 영어의 예에서 어휘적인 관계대명사가 머리어 쪽으로 이동한 것과 같다.

1) '것'은 전통적으로 불완전 명사로 불리어 진다. 그러나, (3)과 같은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경우에는 문장을 이끄는 보문소(complementizer)로 여겨진다 (Whitman, 1990; Lee, K., 1991; Jhang, 1994).

2) 보통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목적어가 동사의 앞에 위치하는 언어들에서만 발견된다고 한다 (Govert, 1976, 1977; Keenan, 1978).

3) 지배결속이론(Chomsky, 1981, 1982, 1986a, 1986b)에서는 문장을 기저구조(D-structure), 표면구조(S-structure), 음성형태(Phonetic Form), 논리형태(Logical Form)의 4개의 표현 구조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저구조는 문장 구성성분의 어휘적 자질을 나타낸다. 표면구조는 문장의 표면적인 자질을 반영하며, 따라서 이동한 문장 성분의 원래 위치를 보여주는 이동에 대한 흔적을 포함한다. 음성형태와 논리형태는 각각 문장의 음성과 의미 구조를 나타낸다.

영어의 관계화처럼 한국어의 관계화도 (8)에서와 같이 장거리 이동 현상을 보인다.

- (8) 장거리 이동 관계화:
- a. [CP 첩수가 [CP 영희가 t<sub>i</sub> 읽었다고] 생각하는 [SPEC OP<sub>i</sub>]] 책
  - b. [CP [CP 첩수가 [CP 영희가 t<sub>i</sub> 읽었다고] 생각한다고] 믿기가 믿는 [SPEC OP<sub>i</sub>]] 책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형성에 대하여 Cole(1987)과 Cole & Herman(1994)은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머리어가 실제로 관계절 안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구조와 표면구조에서는 관계절 밖에 위치하여 외포 머리어 관계절과 같은 구조를 갖는데 단지 머리어가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sup>4)</sup> 그리고 이 빈 머리어는 관계화된 관계절 안의 명사와 일치한다고 한다. 나아가, 그들은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논리형태(Logical Form)에서 관계화된 명사가 빈 머리어 자리로 올라감으로써 어휘적인 머리어를 갖게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9)의 케추아어의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구조는 (10)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9) [Wambra wagra-ta randishka] ali wagra-mi.  
boy coy-Ac bought good cow-Evidential  
'The cow that boy bought is a good cow.'

- (10) a. (9)의 기저구조/표면구조  
[NP [CP Wambra wagra<sub>i</sub>-ta randishka] [NP e<sub>i</sub>]]  
[VP ali wagra-mi].
- b. (9)의 논리구조  
[NP [CP Wambra t<sub>i</sub> randishka] [NP wagra<sub>i</sub>]] [VP ali wagra-mi].

한국어의 내포머리어 관계절의 형성에 대해 Whitman(1990)과 Lee, K.(1991)는 Cole(1987)과 Cole & Herman(1994)이 케추아어의 내포 머리어 관계절 형성에 대해 제시한 것처럼 기저구조와 표면구조에서 관계절 안에 있던 머리어가 논리구조에서 관계절 밖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에 따르면 (11)의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12)와 같다.

- (11) [소년이 공을 찬] 것이 멀리 날아갔다.
- (12) a. 기저구조/표면구조  
[NP [CP 소년이 공을 찬 것이] [NP ]] 멀리 날아갔다.
- b. 논리구조  
[NP [CP 소년이 t<sub>i</sub> 찬 것] [NP 공<sub>i</sub>]] 멀리 날아갔다.

그러나 한국어의 내포머리어 관계절은 외포 머리어

관계절과 달리 (13)에서처럼 장거리 이동 관계화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 (13) 장거리 이동 관계화:
- a. 기저구조/표면구조  
\*첩수는[NP [CP 영희가 [CP 아이가 울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NP ]] 달래었다.
  - b. 논리구조  
\*첩수는 [NP [CP 영희가 [CP t<sub>i</sub> 울고 있다고] 말하는 것] [NP 아이를]] 달래었다.

(13)에서 머리어 '아이'는 하나 이상의 내포문을 넘어 이동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내포 머리어 관계절에서는 외포 머리어 관계절에서와 달리 하나 이상의 절이 머리어의 이동에 대한 장벽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2 관계화된 명사의 위치에 있어서의 제한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앞의 절에서 보았듯 머리어가 이동할 때 건널 수 있는 절의 수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 내에서 관계화가 가능한 명사의 위치도 한정되어 있다. Keenan & Comrie(1977)는 문장 내에서 관계화될 수 있는 명사의 위치는 언어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영어의 경우에는 문장 내의 위치에 있어서의 제약은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문장의 모든 위치에서 관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소유격을 갖는 명사, 그리고 비교급의 목적어 모두 관계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위치에 약간 제약이 있다. 즉, (14)에서처럼,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소유격을 갖는 명사는 관계화가 가능하나 비교급의 목적어는 관계화가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관계화된 모든 자리에 공백이 있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14a - d)에서처럼,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공백이 사용되거나 소유격을 갖는 명사의 위치에는 (14e)에서처럼 대명사가 사용이 된다.

- (14) a. 주어의 관계화:  
[ \_\_\_\_ 책상 위에 있던] 책이 사라졌다.
- b. 직접목적어의 관계화:  
[소년이 \_\_\_\_ 던진] 공이 멀리 날아갔다.
- c. 간접목적어의 관계화:  
[영희가 \_\_\_\_ 빵을 준] 아이가 웃는다.
- d. 전치사 목적어의 관계화:  
[첩수가 \_\_\_\_ 공부하는] 도서관이 크다.
- e. 소유격을 갖는 명사의 관계화:  
[자기의 개가 총명한] 사람

4) 이들의 주장은 잉카족의 언어인 케추아어에 기반을 두었다.

## f. 비교급의 관계화:

\*[영희가 \_\_\_\_\_ 보다 더 큰] 철수

한국어에 있어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외포 머리어 관계절과 달리 관계화 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제한되어 있다. 즉, (15a)와 (15b)처럼, 단지 주어와 직접목적어만 관계화가 가능하고 간접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관계화된 (15c)와 (15d)는 문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

## (15) a. 주어의 관계화:

[책이 책상 위에 있던] 것이 사라졌다.

## b. 직접목적어의 관계화:

[소년이 공을 던진] 것이 멀리 날아갔다.

## c. 간접목적어의 관계화:

\*[영희가 아이에게 빵을 준] 것이 웃는다.

## d. 전치사 목적어의 관계화:

\*[철수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크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의 내포 머리어 관계절과 외포 머리어 관계절 사이의 통사적인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문법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어의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외포 머리어 관계절에 비해 머리어가 이동할 수 있는 절의 수가 더 제한되어 있고 문장 내에서 관계화될 수 있는 위치도 더 제한되어 있다.

## 3.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습득

## 3.1 관찰방법을 이용한 내포머리어 관계절의 발달 연구

Kim(1987)은 약 2세에서 3세 사이에 있는 3명의 한국 아동의 발화를 관찰하였다. Kim에 따르면 한국 아동은 2세에서부터 관계절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16)의 발달 과정을 보인다.

## (16) a. 관계절 어미와 머리어가 없이 두 문장을 나란히 놓기:

[이모가 사주어] [없어]

## b. 적절한 관계절 어미와 보문소 '것'을 갖는 형태 (즉, 내포 머리어 관계절):

[괴물 텔레비에 나오는] 거야?

## c. '것'과 머리어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

[배 타는] 것 사람이야?

## d. 머리어를 갖는 관계절(즉, 외포 머리어 관계절):

[밥 먹는] 스님이 있어요.

아동이 처음 사용하는 관계절은 (16a)처럼 머리어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16b)와 같은 머리어가 관계절 안에 있는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머리어가 관계절 밖에

나오는 (16d)와 같은 외포 머리어 관계절에 비해 몇 개월 먼저 사용된다. 그리고 머리어와 '것'이 동시에 사용되는 (16c)와 같은 관계절 형태는 (16b)와 (16d)의 중간 단계로 사용된다.

Lee, K.(1991)는 1;4세에서 3;9세의 36명의 아동들의 발화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Kim(1987)이 제시한 관계절의 발달 단계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Kim처럼 Lee, K.도 (17a)와 같은 머리어가 없는 관계절이 (17b)에서 보이는 내포 머리어 관계절에 앞서 사용되고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17d)와 같은 외포 머리어 관계절에 비해 먼저 사용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Lee, K., 1991:148).

## (17) a. 머리어가 없는 관계절:

[자전거 타는]

## b. 보문소 '것'이 사용된 형태:

i) 공백이 있는 경우

[\_\_\_\_목에 거는] 거야?

ii) 공백이 없는 경우 (즉, 내포머리어 관계절)

[피아노 탕탕 하는] 것 사주어야겠다.

## c. '것' + 머리어가 사용된 관계절:

[그리고 아빠 쓰는] 거 안경은...

## d. 머리어를 갖는 관계절(즉, 외포 머리어 관계절):

[아빠가 안경 사 줄] 돈이 없다고요...

Lee, K.는 (17b)와 같은 '것'이 사용된 관계절의 형태가 (17d)와 같은 머리어가 사용된 관계절에 비해 더 많이 사용되고(78.61% vs. 21.39%), '것'이 사용된 관계절 중에서 머리어가 관계절 안에 사용된 내포 머리어 관계절이 10%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 3.2 이해도측정 실험을 이용한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발달 연구

Cho(1999)는 4세에서 7세에 이르는 37명의 아동을 연령에 따라 4개 그룹(4세 그룹, 5세 그룹, 6세 그룹, 7세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내포 머리어 관계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실험 문장으로는 (18a)처럼 주어와 관계화된 내포 머리어 관계절 유형과 (18b)처럼 직접목적어가 관계화된 내포 머리어 관계절 유형이 사용되었다. 각각의 유형에 5개의 실험 문장이 사용되어 총 10개의 내포 머리어 관계절이 아동들에게 주어졌다.

## (18) a. 주어 내포머리어 관계절:

아이가 [토끼가 개를 때리는] 것을 만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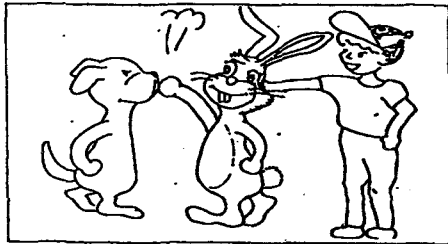
## b. 직접목적어 내포머리어 관계절:

아이가 [곰이 산자를 미는] 것을 만져.

절,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문법,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습득, 관계절의 문법, 관계절의 습득을 미는] 것을 만져.

실험은 조용한 방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동들에게는 한 장의 그림과 실험 문장이 의문문 형식으로 주어졌다. 아동들은 실험 문장을 들으면서 그림을 보았다. 그리고 그 문장이 그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묘사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하였다. 아동들은 주어진 내포 머리어 관계절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예'나 '아니오'를 말함으로써 보이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19)에 있는 문장과 (그림 1)이 주어졌을 때 '예'라고 말하면 그 문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고 '아니오'라고 말하면 잘 못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다.

(19) 아이가 [토끼가 개를 때리는] 것을 만져요?<sup>5)</sup>



(그림 1) 실험 문장의 행위를 보여주는 그림

실험 결과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동들은 주어와 직접목적어가 관계화된 내포 머리어 관계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어 보였다 (주어가 관계화된 경우는 96.8%가 직접목적어가 관계화된 경우는 90.2%가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이해되었다). 가장 연령이 낮은 4세 그룹의 경우에도 주어가 관계화된 경우와 직접목적어가 관계화된 경우가 각각 약 97%와 89%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였다.

	4세 (7명)	5세 (10명)	6세 (10명)	7세 (10명)	전체
주어 관계화	4.86/5	4.70/5	4.90/5	4.90/5	4.84/5 (96.8%)
직접목적어 관계화	4.43/5	4.60/5	4.60/5	4.60/5	4.51/5 (90.2%)

<표 1> 아동에 의한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올바른 해석 (Cho, S., 1999:87)

5)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개인에 따라 구문의 허용에 있어 차이가 크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문장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19)와 같은 실험 문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구문처럼 들릴 수도 있다.

이 결과는 4세에서 7세의 40명의 아동에게 그림 선택 방법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여 동들이 어떻게 주어와 직접목적어가 관계화된 외포 머리어 관계절을 이해하는지를 조사한 Cho의 <표 2>에서 보이는 실험 결과와 비교할 때 아동들에게 내포 머리어 관계절이 외포 머리어 관계절에 비해 이해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주어가 관계화된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전체적으로 약 97%의 올바른 해석을 보이는데 반하여 주어가 관계화된 외포머리어 관계절은 이보다 낮은 약 85%의 올바른 해석을 보인다. 그리고 직접목적어가 관계화된 경우에도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약 90% 정도로 올바르게 해석이 되는데 반하여 외포 머리어 관계절은 약 71% 정도만이 올바르게 해석이 된다.

이 실험에서는 아동들에게 (20a)와 같은 주어가 관계화된 외포 머리어 관계절이 5개, (20b)와 같은 직접목적어가 관계화된 외포 머리어 관계절이 5개, 모두 10개가 실험 문장으로 주어졌다.

(20) a. 주어가 관계화된 관계절:

[\_\_ 토끼를 안아주는] 오리가 있어.

b. 직접목적어가 관계화된 관계절:

[고양이가 \_\_ 때리는] 개가 있어.

	4세 (7명)	5세 (10명)	6세 (10명)	7세 (10명)	전체
주어 관계화	3.67/5	3.91/5	4.50/5	4.89/5	4.23/5 (84.6%)
직접목적어 관계화	2.78/5	3.18/5	4.20/5	4.00/5	4.00/5 (70.8%)

<표 2> 아동에 의한 외포 머리어 관계절의 올바른 해석 (Cho, S., 1999:65)

### 3.3 산출실험을 이용한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발달 연구

Cho(1999)는 38명의 4세에서 7세에 이르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들이 어떻게 관계절을 발화하는가를 알아보는 산출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은 아동들이 (21)에 있는 2가지 유형의 관계절 구문을 갖는 총 10개의 관계절 문장을 말하도록 고안되었다 (각각의 유형에 5개의 비슷한 관계절 구문이 주어졌다). (21a)와 (21b)의 관계절 유형은 주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 구문과 직접 목적어 공백을 갖는 관계절 구문 사이의 습득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21) a. 주어가 관계화된 관계절 구문:

[\_\_ 오리를 안아주는] 토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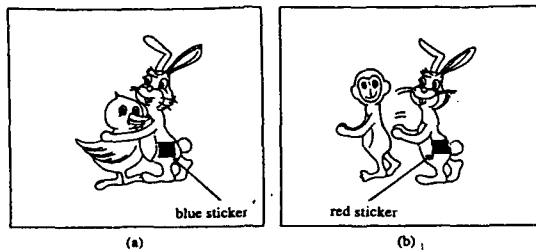
b. 직접목적어가 관계화된 관계절 구분:

[원숭이가 \_\_\_ 차는] 곰

실험은 조용한 방에서 한명씩 이루어졌다. 아동들이 본 실험에 익숙할 수 있도록 간단한 연습을 실시한 다음에, 아동들에게 관계절을 말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쌍의 그림을 주었다. 그런데 이 두 그림에는 각각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관계화의 목표가 되는 동물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각각의 동물에는 두 색깔(파랑과 빨강)의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 그 다음에 실험자는 두 동물의 행동을 기술해주고 '어떤 것에 파란/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하고 묻는다. 예를 들어 (22)의 (=21a)의 기대되는 문장에 대해, (그림 2)에 있는 두 그림을 주고 두 동물의 행동을 기술해 준다(토끼가 오리를 안아줘요./토끼가 원숭이를 밀어요.). 그 다음에 '어떤 토끼에 파란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하고 물으면 아동들은 '오리를 안아주는 토끼'하고 대답해야 한다.

(22) 주어 관계화된 관계절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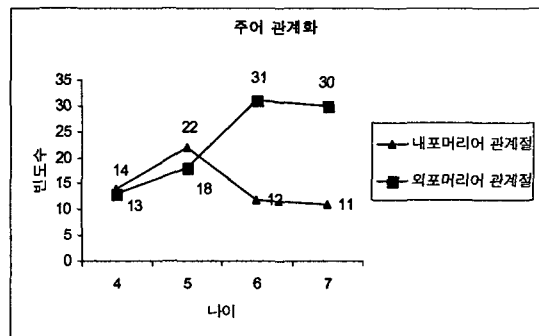
[\_\_\_ 오리를 안아주는] 토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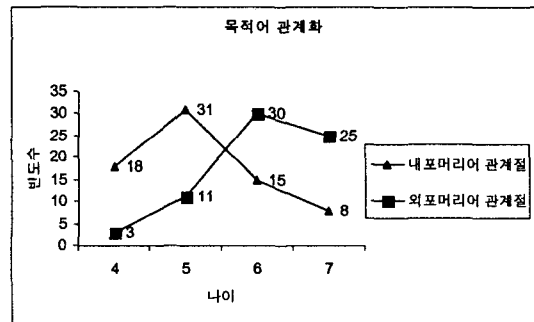
(그림 2) 두 동물의 행위를 보여주는 한 쌍의 그림

실험의 결과는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어 관계화나 직접목적어 관계화를 목표로 했을 때 모두 외포 머리어 관계절 못지 않게 내포 머리어 관계절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각 31.1%와 36.8%).

또한 실험의 결과는 낮은 연령에서는(즉 4세와 5세) 내포 머리어 관계절이 많이 사용되고 높은 연령으로(즉 6세와 7세) 가면서 외포 머리어 관계절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을 (그림 3)과 (그림 4)처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주어 관계화의 목표시 산출된 관계절의 유형



(그림 4) 직접목적어 관계화의 목표시 산출된 관계절의 유형

관철 방법을 이용한 관계절의 발달 연구는 한국어의 내포 머리어 관계절이 외포 머리어의 관계절에 앞서 습득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은 낮은 연령의

<표 3> 주어 관계화와 목적어 관계화의 목표시 산출된 관계절의 빈도수

연령 (수)	주어 관계화					직접목적어 관계화				
	4세 (8)	5세 (11)	6세 (11)	7세 (8)	총계	4세 (8)	5세 (11)	6세 (11)	7세 (8)	총계
내포머리어 관계절	14	22	12	11	59/190 (31.1%)	18	31	15	8	72/190 (36.8%)
외포머리어 관계절	13	18	31	30	92/190 (48.4%)	3	11	30	25	69/190 (36.3%)

아동이 내포 머리어 관계절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산출 실험의 결과에서도 확인이 된다. 그리고 내포 머리어 관계절이 연령이 낮은 아동에게서 많이 사용되고 나이가 많은 아동에게서 덜 사용된다는 사실은 아동들에게 내포 머리어 관계절이 외포 머리어 관계절에 비해 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이해도 측정 실험을 이용한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발달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내포 머리어 관계절이 외포 머리어 관계절에 비해 쉽게 이해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앞서 살펴 본 내포 머리어 관계절에 대한 습득 연구들은 내포 머리어 관계절이 외포 머리어 관계절에 비해 쉽고 따라서 먼저 습득됨을 보여주고 있다.

#### 4. 토론 및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의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통사 구조의 분석을 통해 내포 머리어 관계절이 외포 머리어 관계절에 비해 통사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해, 내포 머리어 관계절은 외포 머리어 관계절과 달리 하나 이상의 절을 넘어 관계화가 일어날 수 없고 또 주어와 직접목적어만이 관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다. 한국어의 내포 머리어 관계절이 외포 머리어 관계절에 비해 통사적으로 더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왜 한국인들에게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사용이 외포 머리어 관계절의 사용에 비해 덜 선호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내포 머리어 관계절의 습득 연구를 통해 내포 머리어 관계절이 외포 머리어 관계절에 비해 더 이해하고 말하기가 쉽고 따라서 외포 머리어 관계절에 비해 일찍 습득됨을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에게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내포 머리어 관계절이 언어 발달 과정의 이른 시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외포 머리어 관계절의 습득에 앞서 많이 사용되어진다는 습득 연구에서의 결과는 언어발달의 이른 시기에 있는 아동들이 내포 머리어 관계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말해준다. 다시 말해, 아동들은 언어 발달의 이른 시기에는 이해하고 말하기 어려운 외포 머리어 관계절 대신 쉬운 내포 머리어 관계절을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내포 머리어 관계절이 외포 머리어 관계절에 비해 더 쉽다는 것은 문장 내에 외포 머리어 관계절처럼 추가적으로 처리해야 할 공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다. 실제, 많은 언어 습득의 연구 결과들은 아동들이 문장 내에 공백을 포함하는 (23)에 있는 문장 구조들, 즉

'easy-to-see' 구문, 의문사를 포함하는 의문문, 관계절 등은 언어 발달 과정에서 늦게 습득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homsky, C., 1969; Tavakolian, 1978; Hildebrand, 1987).

- (23) a. The doll is easy to see \_\_\_\_.  
 b. What did the boy read a story about \_\_\_\_ this morning?  
 c. The lion that the horse bumps into \_\_\_\_ jumps over the giraffe.

#### 참고문헌

- Cho, S. (1999),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Experimental studies o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Chomsky, C. (1969), *The acquisition of syntax in children from 5 to 10*. Cambridge: MIT Press.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 \_\_\_\_\_.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Cambridge: MIT Press.
- \_\_\_\_\_. (1986a),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_\_\_\_\_. (1986b), *Barriers*. Cambridge: MIT Press.
- Cole, P. (1987),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5, 277-302.
- Cole, P. & G. Herman. (1994), Is there LF movement. *Linguistic Inquiry*, 25, 239-62.
- Govert, L. (1976), *A grammar of Diequeno nominal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 \_\_\_\_\_. (1977), Headless relatives in the Southwest: Are they relativized? *Proceedings of the Berkeley Linguistic Society*, 3, 270-278.
- Han, J. (1990), *Movement and empty categories in Korean syntax*. Seoul: Hansin.
- Hildebrand, J. (1987), The acquisition of preposition stranding. *Canadian Journal of Linguistics*, 32, 65-85.
- Jhang, S. (1994), *Headed nominalizations in Korean relative clauses, clefts and comparatives*.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 Keenan, E. (1978), *Relative clauses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Unpublished manuscript.
- Keenan, E. & B. Comrie. (1977), Noun phras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8, 63-100.
- Kim, Y. (1987),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in English and Korean: Development in spontaneous production*. Ed.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Kuno, S. (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Cambridge: MIT Press.
- Lee, K. (1991), *On the first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in Korean: The universal structure of COMP*.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Lee, S. W. (1983), *Syntax of some nominal constructions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 Tavakolian, S. (1978), The conjoined-clause analysis of relative clauses and other structures. In *Papers in the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child language*, ed. H. Goodluck and L. Solan, 37-83.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inguistics Department, GLSA Publications.
- Whitman, J. (1990), A note on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s. Unpublished manuscript.
- Yang, D. W. (1973), *Topicalization and relativization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접 수	2003년 5월 2일
게재승인	2003년 5월 30일